

국별 리포트

리비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리비아(Libya)

I. 일반개황

면적	1,760천 km ²	G D P	791억 달러 (2010년)
인구	6.55백만 명 (2010년)	1 인 당 GDP	12,092 달러 (2010년)
정치체제	이슬람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화단위	Libyan Dinar (LD)
대외정책	친서방 개방정책 전환중	환율(달러당)	1.27 (2010년)

- 리비아는 한반도의 8배에 달하는 국토와 65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 북부 연안에 위치하여 알제리, 이집트, 차드, 수단 등과 접경하고 있음.
- 196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카다피 (Qadhafi) 국가 원수는 집권 후 '이슬람-사회주의'의 슬로건 하에 의회 및 정당 체도를 인정하지 않고 1인 지도체제를 유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2011년 2월에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카다피 퇴진 및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500여 개 부족 연합이 반카다피 진영을 구축하면서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미국 등의 서방 국가가 카다피의 무자비한 무력 강경진압에 반발하여 내전에 개입하면서 정국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제성장률	5.9	6.0	2.5	-1.6	10.3
재정수지/GDP	33.1	28.6	30.3	7.0	12.9
소비자물가상승률	1.5	6.3	10.4	2.5	4.5

자료: IMF, EIU

□ 세계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2010년에 경제성장률 대폭 상승

- 2003년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 이후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정부가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대규모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2007년까지 연간 5% 이상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 2008~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와 유가 하락, OPEC의 감산 조치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은 각각 2.5%와 -1.6%로 하락하였음.
-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 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10.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재정수지 흑자규모는 2010년에 전년보다 소폭 확대

- 재정수지는 고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1~08 기간에 GDP 대비 30% 내외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재정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재정수지 흑자 규모도 GDP 대비 7.0%로 대폭 축소되었음.
- 2010년에는 국제 유가가 회복되면서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12.9%로 전년 대비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2010년에 전년 대비 소폭 상승

- 2008년에는 곡물 등의 국제 가격 상승과 오일 머니 유입으로 인한 국내 유동성 증가, 연료 및 전기 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의 약 2배 수준인 10.4%로 크게 상승하였음.
- 2009년에는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시행하는 한편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하여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였으며, 식품 등의 국제거래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은 2.5% 수준으로 안정되었음.
- 2010년에는 식품 등의 국제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석유부문이 GDP의 50%, 총수출의 90%, 재정 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구조가 석유 부문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어, 국제 유가 및 석유 생산량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부가 비석유 부문 투자를 통하여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관광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정부는 2010-13년 간 33억 디나르 규모의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여 식품 가공, 섬유, 전자재 등 제조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임.

□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한 인프라 시설 부족

- 1986년 이후 약 20년에 걸쳐 지속된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프라 시설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음.
- 경제제재 해제 이후 정부는 수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계획을 세우고 공항,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고질적인 용수 부족

- 사하라사막의 일부인 리비아사막이 전 국토에 걸쳐 있어, 2007년을 기준으로 농경지가 국토의 8.8%에 불과할 정도로 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정부는 고질적인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부 사하라 사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북부 지중해안 도시들에 하루 650만t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수로 건설 계획을 진행 중임.
- 총 5단계 중 1~2단계 공사가 완공되었으며, 현재 3~5단계 공사가 진행 중임.

나. 성장 잠재력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부국

- 석유는 2009년 기준 확인매장량이 443억 배럴(전세계 매장량의 3.0%)로 세계 8위, 아프리카 1위 수준임.
- 국토의 절반 이상이 미탐사 지역으로 남아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됨.

- 천연가스는 2009년 기준 확인매장량이 54.4조 ft^3 (전세계 매장량의 0.8%)로 세계 20위, 아프리카 3위 수준이며, 미확인 매장량은 확인매장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정부는 석유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가스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 서부리비아가스사업(WLGP ; the West Libya Gas Project)이 완공됨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량은 2003년 81억 m^3 에서 2008년 159억 m^3 로 배증되었음.
- 지리적으로 세계 최대 가스 소비시장인 유럽과 근접하여, 천연가스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해저 가스관을 통하여 유럽에 공급하고 있음.

□ 서비스업, 건설업 등 신규 성장 동력 개발

- 서비스 산업은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로 2009년에는 5.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95년 5.6만 명에서 2008년 76만 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정부는 관광 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광 산업을 전략 분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임.
- 정부가 늘어난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주택, 학교, 상하수도 처리 시설 등 사회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해 석유 부문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어 건설업은 향후 10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다. 정책성과

□ 산업다각화 및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

- 정부는 산업인프라 등 비석유 부분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나, 고유가로 인하여 정부가 에너지부문 인프라 구축에 더욱 전념하면서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임.

- 정부 소유의 농장 설립 등을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자급자족형 농업체제 구축은 정부의 에너지 부문 집중 투자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해 현재 식료품 수요의 80%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분야, 통신, 인프라 개발, 호텔, 미디어, 소비재 유통에 큰 이권을 보유하고 있는 카다피 일가 등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공공 부문 축소와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도 지지부진한 실정임.
- 정부는 비효율적인 정부 소유 기업 매각으로 공공 부문을 축소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나, 정부의 과거 정책 추진 사례를 고려하면,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되고 있어 활성화 정책이 착실히 수행될 지의 여부는 미지수임.

□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추진

- 정부는 총 재정지출의 10% 이상이 소요되는 대수로 공사뿐만 아니라 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상업 및 관광단지 개발 등을 위해 다수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2010-13년 경제개발계획 발표

- 리비아 정부는 2010~13년 간 고용 창출, 생산성 향상, 산업 다각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 33억 디나르를 지출하는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함.
- 동 계획은 231개의 식료품 생산 공장, 56개의 화학 공장 등 2,191개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25,167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e
경 상 수 지	22,170	28,510	35,702	9,381	16,198
경 상 수 지 / GDP	36.8	38.8	37.3	13.6	20.5
상 품 수 지	24,254	29,269	40,292	15,053	21,704
수 출	37,473	46,970	61,950	37,055	46,314
수 입	13,219	17,701	21,658	22,002	24,610
외 환 보 유 액	57,907	77,898	90,803	95,616	99,907
총 외 채 잔 액	4,456	4,300	4,515	4,741	4,978
총 외 채 잔 액 / GDP	7.4	5.9	4.7	6.9	6.3
D S R	2.7	2.3	1.9	3.3	3.3

자료: IMF, EIU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규모 소폭 확대

- 2003년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석유 수출 증가 및 고유가의 영향으로 상품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8년에 357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2009년에는 급격한 유가 하락과 OPEC의 감산조치로 전년 대비 74% 감소한 9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유가 상승 및 원유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162억 달러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10년에는 유가 상승 및 원유 수출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되어 2005년 수준인 15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연도별 원유 수출액 : 386억 달러(2007년), 517억 달러(2008년), 358억 달러(2009년), 432억 달러(2010년)

□ 외환 보유액 증가 추세

- 경제제재 해제 이후 국제적 고유가에 따른 석유 수출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6년 말 579억 달러에서 2010년 말 999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음.

[외채상환능력]

□ 외채구조 양호

- 외채규모는 최근 수년 간 45억~5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외채 비중도 2010년에 6.3%를 기록하는 등 5~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DSR도 최근 수년 간 3%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채구조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및 국제관계

□ 카다피의 42년 장기집권 지속

- 1969년에 무혈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카다피(Qadhafi)는 집권 이후 '이슬람-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경제 전반의 국유화를 추진하였으며, 42년 간 의회 및 정당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1인 지도체제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음.
- 카다피는 정부조직의 공식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혁명의 지도자 및 군최고사령관으로서 사실상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혁명위원회(revolutionary committee)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정 전반을 통제하고 있음.

- 2009년에 카다피가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Saif al-Islam)에게 개혁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국가 최고위 자리를 마련해주면서 후계 구도를 구상하였음.

□ 반정부 시위 발생 및 내전 양상으로 확대

-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2011년 2월에 제2의 도시 벵가지에서 카다피의 퇴진 및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정부가 이를 군과 용병으로 강경진압하면서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시위 초기에는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 성격이 짙었으나, 카다피의 독재 및 부패에 반발한 와르팔라 및 주와야족 대표들이 카다피의 하야를 요구하며 500여 개 부족과 연합한 반정부 진영을 구성하면서 점차 부족 간 갈등으로 변질되어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리비아는 500여 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대 부족인 와르팔라, 주와야, 카다파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카다파 부족의 리더인 카다피는 42년 간 주요 부족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적들을 숙청하면서 절대 권력을 유지해 왔음.
 - 2011년 2월 27일에 반정부 세력이 벵가지에서 카다피 정부의 법무장관 출신인 무스타파 압델 잘릴 (Moustapha Abdeljalil)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3월 23일에는 개혁주의자인 마흐무드 지브릴 (Mahmood Jibril)을 총리로 하는 임시정부를 구성하였음.
 - 내전 초기에는 반정부 세력이 수도 트리폴리까지 넘보며 우세를 보였으나, 카다피 친위대의 막강한 군사력에 밀려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되었음.
- 국제사회가 카다피의 강경 무력진압으로 인한 무자비한 학살에 반발하여 내전에 개입하면서 정국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1년 2월 26일에 카다피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및 카다피 일가의 해외자산 동결, 리비아 앞 무기수출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17일에 리비아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 카다피 정부는 즉각 휴전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3월 19일에 이를 번복하고 뱅가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음. 이에 미국 등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리비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였고, 리비아 내전은 국제전 양상으로 변모되었음.

□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 2003년 UN의 경제 제재 조치 해제 이후 회복되었던 서방과의 관계가 카다피 정부의 민주화 시위 강경 진압 및 민간인 학살로 인해 급속도로 악화되었음.
- 1986년 1월에 미국이 테러 조장 혐의로 미국내 리비아 자산동결, 무역거래 금지 및 리비아 내 미국인 완전 철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1992년에 유엔이 1988년의 미국 팬암기 폭발 및 1989년의 프랑스 UTA기 폭발 사건에 대한 혐의로 경제제재를 결의하였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1년 2월 26일에 대 리비아 제재안을 결의하자,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잇따라 동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채택하고 있음.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월 17일에 리비아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후 미국, 영국, 프랑스 주도의 연합군은 카다피 정부에 대해 공습을 감행하였음.
- 연합군은 군사작전 지휘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 넘기기로 합의하였으며, NATO는 3월 23일에 카다피 정권에 제공되는 불법 무기와 용병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봉쇄를 시작하였음.

□ 중동 국가와의 관계 악화

- 카타르가 아랍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서방이 주도하는 군사작전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전투기 2대와 화물수송 제트기 1대를 급파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도 동 작전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중동 국가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실업률은 최소 30%에 달하고, 청년 실업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반면, 고급기술이 필요한 분야 등에 근무하는 해외 노동자들이 1백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2011년 2월에 카다피의 퇴진 및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정부가 이를 군과 용병으로 강경진압하면서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시위 초기에는 카다피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 성격이 짙었으나, 점차 부족 간 갈등으로 변질되어 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 : 6등급 (2010. 1) → 5등급 (2011. 1) → 7등급 (2011. 3)
- S&P : A- (2009.3) → BBB+ (2011. 2) → BB (2011. 3)
- Fitch : BBB+ (2009.5) → BBB (2011. 2) → BB (2011. 3)

□ OECD 신용등급 하향 조정

- 2011년 1월에 개최된 국가신용도평가전문가 회의에서 경제지표 및 외채상환태도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1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나, 정국 혼란 및 내전이 지속되어 3월 말 개최된 국가신용도평가전문가 회의에서 동국의 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2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신용등급 하향 조정

-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자 2011년 2월에 S&P와 Fitch는 동국의 신용등급을 모두 1 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며, 민주화 시위가 부족간의 내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무력 충돌이 심화되자 2011년 3월에 S&P는 4 단계를, Fitch는 3단계를 각각 하락시켜 모두 BB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제한적으로 인수 가능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외채상환태도

□ 외채 부담은 낮은 수준

- 풍부한 오일머니와 20여 년 간 지속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외채 규모는 미미한 수준임.
- 외채잔액은 2009년 말 현재 47억 달러로 GDP의 6.3%에 불과하나, 에너지 개발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일관성 없는 외채상환태도 개선

○ 동국은 일관성 없는 외채상환태도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으나, 2003년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외채 원리금을 대규모로 상환하는 등 외채상환 태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음. 2010년 1월에 개최된 OECD 국가신용도평가전문가 회의에서도 동국의 외채상환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 2010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앞 연체 현황

- 단기 : 총지원잔액 1.4억 달러 (연체금액 : 0.4백만 달러, 0.3%)
- 중장기 : 총지원잔액 1.9억 달러 (연체금액 : 9.2백만 달러, 4.8%)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 · 리비아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821	1,235	1,41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자동차
수 입	12	3	171	석유제품, 원유, 기초유분
합 계	833	1,238	1,238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 국교수립 : 1980. 12. 29 (북한과는 1974. 1 수교)

□ 주요협정 : 경제과학기술협정(1999), 무역협정(2006), 투자보장협정(2006)

□ 2010년 대 리비아 교역 규모는 1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0년 대 리비아 수출은 선박해양구조물 및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4억 달러를, 수입은 석유제품, 원유 등을 중심으로 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1년에 대우건설이 5,000억원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 건설 프로젝트 수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2010년 우리 기업의 대 리비아 수주 규모는 계약 기준으로 19억 5,969만 달러로 연간 해외 수주액의 2.7% 수준에 달함.
- 해외직접투자 (2010년 12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 41건 3억 3,380만 달러

V. 종합의견

-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리비아는 경제제재 해제, 국제 유가 상승, 원유 생산 증대를 바탕으로 2007년까지 연간 5% 이상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제 침체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1.6%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2010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 유가 상승 및 원유 생산량 증가 등으로 10.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내전 발발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인프라 및 생산 시설이 파괴되는 등 정국 불안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카다피는 42년 간 의회 및 정당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1인 지도체제를 유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나, 2011년 2월에 카다피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면서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이 시도되었음.
- 카다피의 독재 및 부패에 반발한 와르팔라와 주와야족 대표들이 벵가지에서 반정부 진영을 구성하면서 민주화 시위는 내전으로 발전하였고, 국제사회가 카다피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에 반발하여 내전에 개입하면서 리비아 사태는 국제전으로 전개되었음.

미국, 영국,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공습을 감행하였고,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 또한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등 동국에 대한 압박이 점차 강해지고 있으나, 카다피는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정국 불안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